

#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서철원\*\*

- I. 문제 제기
- II. 백제문화권과 고려 속요
- III.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 IV. <정읍사>의 가치와 속요의 현장
- V. 요약과 전망

## <국문초록>

이 글을 통해 <정읍사>와 정읍 지역문화권의 관계를 살피고, 해당 작품과 지역의 문화사적 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정읍사>의 형성이 백제 시대부터 인지, 고려 시대 이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 『고려사』·『악지』의 『삼국속악』 조에 보이는 다른 백제가요 역시 절반 이상이 후기 신라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삼국속악』 조만을 근거로 <정읍사>의 형성 연대를 백제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들 백제가요에 나타난 지역성, 여성화자와 애정 주제 등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백제가요가 고려속요와 공유하고 있는 것들로서, 신라 향가의 수도권 중심, 남성화자, 종교적 지향과는 대조적이다. 비단 <정읍사>뿐 아니라, 『삼국속악』 조의 백제가요 자체가 향가와는 대조되는 나름의 전통을 수립하여 고려속요에 물려준 것이었다. 정읍 지역에서 <정읍사>가 형성된 문화사적 기반으로, 석탑과 고분

\* 이 글은 국문학회 2019년 하계학술발표대회(서울대학교, 2019.8.22)와 제3회 수제천보존회 학술 세미나(정읍시 수제천보존회, 2019.9.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문숙희, 임미선, 이용식, 유종국 선생님들의 조언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군을 통해 확인되는 그 역량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읍에는 현존 백제 양식 석탑 37기 가운데 5기가 남아 있는데, 단일 지역으로 최다이다. 시기상으로도 11~14세기에 고루 나타나 있어, 무신 집권기 즈음까지도 정읍이 ‘백제’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고분군에 반영된 마한 문화의 잔재를 통해,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이 마한과 백제에 두루 걸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읍사>의 창작 시기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백제문화권의 중추였던 정읍 지역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그 정체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정읍사, 정읍, 수제천, 고려속요, 백제가요, 지역문화권, 백제 양식 석탑

## 1. 문제 제기

이 글의 목적은 정읍 지역과 <정읍사><sup>1)</sup>의 문화사적 위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읍과 그 주변 지역을 백제문화권<sup>2)</sup>의 일부로 설정하는 한편, 고려속요의 형성 과정에서 <정읍사>가 맡았던 역할을 되새길 것이다.

정읍은 다수의 산성과 고분군이 남아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의 여느 요충지가 그러하듯, 이 지역에 얽힌 문화 예술의 흔적은 만족스러울 만큼 남아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정읍사>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현존 유일의 백제가요 혹은 민요에서 유래한 고려속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sup>3)</sup> <정읍사>는 궁중음악 수제천(壽齊天)으로 이어지는 한

1) 노래로서 본 작품의 명칭은 문헌에서 주로 <정읍>이라 지칭되어 왔고 국악에서는 이 명칭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노랫말로서 ‘정읍의 사’, 곧 <정읍사>에 치중해 온 고전문학 연구에서의 관행과 실제 지명 ‘정읍’과의 편의상 구별을 위해 일단 <정읍사>라 부르겠다.

2) 서철원, 『백제문화권의 <정읍사>와 고려속요의 기원』,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2009, 291면.

3) 연구사 초기에는 이 글의 2장에도 인용한 『삼국속악』조에 기초하여 백제가요로 보는 관점이 많았지만 ‘전주’라는 후대의 지명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임주탁, 『정읍의 창작시기』, 『한국시가연구』 제1집, 한국시가학회, 1997, 304~305면에 이르러 지명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에, 영남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무고정제에 쓰인 <정읍사>를 백제 시대에 있었

편, 고려속요로서 조선 시대 내내 지속과 변용을 되풀이하였다.<sup>4)</sup> 게다가 <정읍사> 콘텐츠화의 시도<sup>5)</sup>와 정읍사 공원에 남은 흔적들은 고전 작품이 여전히 문화사 텍스트로서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고 있다.

<정읍사>는 부부간의 정감과 여성 화자의 기다림이라는 가족적,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층의 민요에도, 상층의 궁중음악에도 잘 어울렸다. 그렇게 먼 옛날부터 오랜 시간 동안 널리 공감할 수 있었다. <정읍사>가 속요로서 상층과 기층을 아우르고, 수제천이 되어 궁중음악으로서 모든 지역에 전파되는가 하면,<sup>6)</sup> 1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승되어 아직도 망부석처럼 버티고 선 생명력은 바로 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꾸밈없는 소박함에 있지 않을까?

이 글은 궁중음악으로 정제된 수제천의 선율이나 음악이 지닌 힘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이전에, <정읍사>가 지닌 보편적인 소박함이야말로 정읍을 비롯한 백제문화권의 본질이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신라 문화와는 구별되어 잊힌 것도 같지만, 실상은 사라지지 않고 고려속요를 비롯한 한국 시가와 이후의 음악사를 지탱해 온 큰 맥이 되었다.

이 가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가, 특히 한국 시가와 관련하여 성립 가능한 것인지 보이기 위해 향가와

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양태순, 『정읍사는 백제 노래인가?』,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원 수록: 『한국문학사의 쟁점』, 김문당, 1986), 이회, 1997, 147면에서는 임주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무고정제의 <정읍사>를 창작이 아닌 개편의 성과로 보았다. 임형택, 『<정읍사>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김문당, 1992, 203면에서도 『고려사』·『악지』의 <한송정곡>, <월정화>와 거의 같은 내용의 시조와 <진주난봉가>가 각각 존재한다는 개연적 추론에 따라 <정읍사>에 관한 기록들을 존중해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무고정제의 <정읍사>를 최초 창작으로 볼지, 개편으로 볼지에 따라 창작 연대는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국악 쪽의 입장은 임미선, 『정읍의 창작 시기와 전승 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 한국국악학회, 2007, 279면에 따르면 통일신라에서도 고구려, 백제 음악을 가장, 연주하였고, 그것이 고려 시대와 영남을 비롯한 다른 시대, 지역까지 전승,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정읍을 백제노래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다.

4) 김명준, 『<정읍> 전승사에서 ‘정읍’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35~56면.

5)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127~149면.

6) 근래에는 노래 <정읍>과 궁중악 <수제천>이 별개 아닌 완전히 같은 작품이라는 관점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읍사>의 형성 과정에서 백제-혹은 마한까지의 문화권과의 상호 작용을 주된 논제로 삼았으므로 고려, 조선의 궁중악과의 관계는 훗날의 과제로 기약하고자 한다.

고려속요의 대비를 통해 신라와 백제의 거리를 살피겠다. 여기서 ‘고려속요’의 자리에 ‘백제’가 놓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정읍사>에 있다. <정읍사>는 『고려사』·『악지』에 삼국 속악으로서 그 이름이 전하는 한편, 고려속요 수록 문헌에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 백제와 고려가 공유하는 시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백제가요와 속요의 관계 설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나아가 신라와 백제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중앙집권을 추구한 신라와 지방분권을 추구한 다핵 국가 백제 사이의 차이점도 드러난다. 현존하는 작품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가는 수도권 경주 일대의 남성 화자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죽음을 마주한 개인적 서정을 주로 드러낸 작품이 다수라면, 속요는 정읍, 서경, 동래 등 여러 지역의 여성 화자가 구체적이거나 민요적인 서정을 노래한 경우가 많다. 훗날의 시조와 가사에 남성, 여성 화자가 병존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껏 남은 향가와 속요는 성별과 지역, 정서적 대비가 확연히 나타난다. 편찬자의 취향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향가가 실린 『삼국유사』가 여성의 역할과 지역문화, 애정 제재를 나름대로 폭넓게 소개한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을 차이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게 향가와는 대조적인 속요의 특징은 <정읍사>를 비롯한 백제가요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에서 중추적 역할을 차지했던 정읍 지역의 문화사적 위상을 백제 양식 석탑과 고분군 등의 흔적을 통해 다시 조명할 것이다. 그간의 <정읍사> 연구에서 문헌이나 구비전승 자료는, 그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더라도 그 당시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여기서는 ‘그 당시의 것’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문화사 자료로서 석탑과 고분군이 전해주는 고고·미술사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백제 양식 석탑은 현재까지 37기가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5기가 정읍 지역에 남아 있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그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읍에는 순수한 백제형, 백제 양식 절충형, 신라 양식 절충형 등이 고르게 남아 있고, 고려 말기인 14세기까지 지속하여 건립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읍은 고려 후기까지도 백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 당시의 유산이었던 고분군과 산성뿐만 아니

7)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백제 양식 석탑』, 대광출판사, 2005, 7면.

라, 백제 양식 석탑은 정읍의 사람들이 고려 후기까지도 백제인으로 살아왔음을 전해주는 기념비와도 같다.

그리고 <정읍사>의 시가사적, 문화사적 가치와 함께 속요의 현장으로서 정읍 지역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졌듯 <정읍사>는 일하느라 귀가가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 화자의 노래인데,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성 화자는 『고려사』·『악지』의 실전(失傳) 백제가요에도 나타나 있고, 한국 시가에 두루 등장하고 있다. 서정성뿐만 아니라 약간의 서사적, 극적 구성의 요소 또한 일부 보이는데, 이것이 고려속요가 지닌 연행 예술로서의 성격과 맺는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겠다. 연행 또는 공연의 요소는 <정읍사>가 수제천으로 수용되고 현대적 관점에서 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 II. 백제문화권과 고려속요

향가와 고려속요는 계승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sup>8)</sup> 그 형식과 어조는 계승 관계보다는 병렬적이며 대조적인 쪽에 가깝다. 남은 자료의 상황이 다소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의 성격 역시 다르다.<sup>9)</sup>

초기 향가는 <혜성가>처럼 직접적인 주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7세기 후반 <원왕생가>와 <모죽지랑가>를 거치면서 향가는 정도 신앙을 비롯한 종교적 상징이나, 아름다웠던 시절이 쇠락하고 소멸해 가는 시간과 죽음 인식을 바탕으로 서정시가 되어 갔다. 경덕왕대의 향가 5편을 비롯한 다수의 향가는 수도 금성과 그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헌화가>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작품은 있었지만 <도천수관음가>를 제외하면 여성 화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동요>, <헌화가>의 편린을

8) 이른바 향가계 고려속요라는 <정과정>, <만진춘별사> 1연 등이 그러한 시기에 따라 형식이 규정되었고, 고려가 신라 문화를 전적으로 계승했으리라는 역사적 시각 역시 이에 일조했을 것이다.

9) 서철원, 『향가와 속요의 사이 - 시행 구성과 어조, 정서의 대칭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30집, 국문학회, 2014, 39~62면.

제외하면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거의 없는 점이 어색하다. 이것은 현존 향가가 『삼국유사』와 『균여전』이라는, 불교 관계 문헌에만 실려 있는 탓이라고 소박하게 단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품들도 다수 등장하고, 그 가운데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제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가에 남녀 간의 애정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꼭 『삼국유사』라는 문헌의 종교적 성격에만 있지 않고, 향가의 장르적 속성 자체에 그 까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에 비하면 고려속요는 민요에 바탕을 둔 것이나, 개인의 창작물이거나 관계없이 남녀의 이별과 그리움, 미련과 그에 따른 고독을 노래한 것들이 많고, 찬불가 또는 무가의 성격을 지닌 것들보다는 애정 시가들이 현재 우리의 기억에 더 짙게 남아 있다. 궁중음악으로서 고려속요의 연행자가 주로 궁녀, 기녀들이었던 것에도 이유도 있겠지만 이들 작품의 화자는 대개 여성이었으며, <정과정>, <쌍화점>처럼 남성의 창작이 분명한 경우에도 여성 화자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불리곤 했다. 민요에 바탕을 두기도 했고, 연행자가 전국에서 뽑힌 기녀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향가와는 달리 수도권만을 배경으로 삼지 않았고, <정읍사>, <서경별곡>, <정과정>처럼 특정 지역을 토대 삼아 전파, 전승되었다.

현존 작품을 기준으로 보면 신라의 향가는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불교 신앙과 사상에 바탕을 두고 남성 화자의 개인적 서정시의 면모를 주로 보여왔던 반면에, 고려속요는 여러 지역의 민요와 창작시 가운데 수집된 것들로 그 정서는 남녀 간의 이별, 그리움, 미련, 고독 등을 중심으로 여성 화자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이다. 몇 편 남지 않은 작품군을 이렇게 대비하여 역사적 장르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작품조차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향가는 어느 한 구심점(그것은 종교적 깨달음일 가능성이 크다.)을 향해 모이고 있다면, 속요는 여러 지역에 걸친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향한 공감과 연민을 퍼뜨리고 있다.

향가와 대비되는 고려속요의 지역성, 여성화자, 애정 주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사』·『악지』의 『삼국속악』조에 제목(혹은 지역명)만 남아 전하는 백제가요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다.

[선운산] 장사(長沙) 사람이 병역에 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그의 처가 남편을 생각하고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이다.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光州)의 명산이요, 광주(光州)는 전라도의 거읍이다. 무등산에 성을 쌓고 주민들이 이 성(城)을 믿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으므로 이 노래를 불렀다.

[방등산] 방등산은 나주(羅州)에 속한 현(縣)인데 장성(長城) 접경에 있다. 신라 말년에 도적이 봉기하여 이 산을 근거지로 삼고 양가 자녀들을 많이 납치, 약탈하였다. 그중에 장일현(長日縣) 여성도 역시 잡혀갔는데 이 노래를 지어 자기 남편이 즉시 와서 구조하지 않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정읍]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고을 사람이 행상(行商)하러 나간 지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그의 처가 산봉우리 돌 위에 올라서서 바라다보면서 그의 남편이 밤에 여행하다가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그 말을 진흙 물에 몸이 더러워진다는 노래를 지었는데 세상에서는 등점망부석(登岾望夫石)이 있다고 전한다.

[지리산] 구례(求禮)현에 사는 사람의 처가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는 지리산에 살고 있었는데 집은 가난하였으나 머느리의 도리는 다 지키었다. 백제 왕이 그가 미인이란 소문을 듣고 데려가려 하니 그 여자가 이 노래를 짓고 죽기를 맹세하고 복종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였다.<sup>10)</sup>

현존하는 백제 당시의 문학, 예술 관계 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위 자료는 백제의 시와 노래가 지닌 개성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정리가 있다. 여기서도 백제 문학의 특징으로서 지역성과 여성화자, 애정 주제가 주요한 특질로 지적되고 있다.

- ① 가난한 피지배층 즉 서민이 주체를 이루고 있음.
- ② 여인들 그것도 남편이 있는 부녀자가 중심에 있음.
- ③ 사회적 불만을 담고 있음.

10) 『고려사』 권 71 「약지」 25 「악」 2 「삼국속악」 조.

- ④ 남녀의 정사(情事)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⑤ 전과성과 지속성
- ⑥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저항성
- ⑦ 산의 이름을 딴 가요의 명칭
- ⑧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 부여·공주·정읍·고창·장성·남원·광주 등.<sup>11)</sup>

다만 여성 화자와 ‘백제’라는 국호의 의미와 관련한 2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백제가요의 남녀 관계는 주로 부부 사이의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관계를 보호, 존속하려는 윤리 의식이 정감과 함께 드러났다는 점이다. 위의 <선운산>, <방등산>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은 가족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리산>의 정절은 가족 제도를 수호하려는 윤리적인 의지에 한걸 가깝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이들 실전 백제가요와 <정읍사>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사>를 제외한 속요의 여성 화자는 아내보다는 기녀의 처지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며, 사회 제도나 가족 관계보다는 남녀 사이의 정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컨대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화자가 겪는 이별에서 부부와 가족 관계를 떠올렸던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궁중음악으로서 속요의 성격을 고려하여 더 따질 문제이긴 하지만, 속요의 연행자로서 기녀가 작품 속의 화자를 자신의 자의식과 동일시한 것에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sup>12)</sup>

둘째, 위의 백제가요 가운데 백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다. 모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백제 당시의 것과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 섞여 있는 셈이다. <무등산>에서 쌓았다는 산성은 광주의 무진고성지(無珍古城趾)일 텐데, 신라하대에 축조되어 고려 초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3)</sup> <방등산>에서 말한 ‘신라 말의 도적 떼’란 아마 후삼

11) 조재훈, 『백제의 문화와 생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12) 속요는 <사모곡>과 <상저가>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족 관계를 제법 진솔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직접 소재로 삼았다고 볼 사례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조선 시대의 유희가, 교훈 시가 등에서 부부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13) 무진고성지(광주 기념물 14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산에 있는 성터로, 무등산의 북쪽 지역인 장원봉을 중심으로 갖고개의 장대봉과 제4수원지 안쪽의 산 능선을 따라 타원형으로 만들어졌



국 건국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도적 때일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은 널리 알려진 <도미설화>와 유사한데, <도미설화>는 8세기 무렵 김대문에 의해 한성부 일대에서 채록된 것이었다.<sup>14)</sup> 이렇게 보면 이름이 남은 ‘백제’가요의 절반은 백제 시대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기서 백제가요의 ‘백제’는 역사적, 시간적인 ‘시대’의 개념이 아닌, 문화적, 공간적 ‘권역’에 가깝기도 하다.<sup>15)</sup> 따라서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이들 지역이 백제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백제어 역시 백제 멸망 이후에도 1세기 이상 유지 되었으며,<sup>16)</sup> 지역민과 지역문화에 대한 신라 정부의 뿌리 깊은 차별 때문이라도 이러한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존하는 향가는 결국 신라의 수도권 경주의 고유한 서정시로 남게 되었지만, 백제가요는 여러 지역을 각자의 핵으로 삼아 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명을 작품 이름처럼 지니고 고려의 속요에 지역성, 여성화자, 애정 주제라는 정체성을 물려주게 되었다. 따라서 <정읍사>의 창작 시기가 백제 시대인지 고려 시대인지 따지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정읍사>가 설령 백제 시대의 노래는 아닐지라도, 백제문화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가에 나타난 백제문화권의 정체성은 곧 지역성, 여성화자, 애정 주제일 텐데, 이것이야말로 백제가요가 고려속요에 물려준 유산이라 하겠다.<sup>17)</sup>

종래의 관점을 따르면 고려속요에 백제의 지역색을 갖추었거나 백제가

다. 성벽은 바닥에 5단 정도를 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의 성벽을 잡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성벽의 남북 길이는 1000m이고, 동서의 너비는 약 500m, 둘레는 3500m에 달하는 규모가 큰 성이다. 성안에서 ‘관(官)’, ‘국성(國城)’ 등의 글자를 새긴 기와조각들과 새, 귀신의 얼굴을 새긴 막새기와, 그리고 순청자, 상감청자 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잣고개 남쪽 위층 건물터에서 발견된 새무늬 수막새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새 무늬가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출토되는 유물들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전기까지 사용된 성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3,00140000,24>>

14) “즉 양 기록은 역사서라기보다는 풍물지적인 성격을 띤 김대문의 『한산기』에서 인용했으리라고 추정될 뿐 아니라, 설화의 속성상 도림의 활약과 개로왕의 방탕을 과장하는 식의 도식화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도학, 『살아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 175면.)

15) 서철원, 주 2)의 글, 293면.

16) 도수희, 『백제말의 시대별 특징』,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4, 56면.

17) 다만 모든 고려속요가 지역성, 여성화자, 애정 주제를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고, 양자의 공통점, 교집합이 이런 쪽에 있다는 것이다.

요일 가능성이 큰 <정읍사> 1편만이 섞인 특이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비록 노랫말을 남기지는 못했는지언정 백제가요가 고려속요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들 백제가요를 속요의 원형질 또는 넓은 의미의 속요로 존중하는 편이 적절하다.

### III.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전라도·정읍현」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sup>18)</sup> 정읍의 옛 이름은 ‘정촌현(井村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대산군(大山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 고부군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덕왕보다 훨씬 이전에 신라 눌지왕 36년(452)에도 대산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여<sup>19)</sup>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읍은 백제 ‘고사부리군’의 일부로서 “백제의 지방 조직인 오방성 중 중방 고사성에 속해 있어 정치와 군사요충지로 손꼽혔던 곳이다. 그래서 주변에는 은선리토성, 금사동토성, 고부읍성, 두승산성, 운학리 고분군, 탑과 등 삼국시대(백제) 유적들이 많다”<sup>20)</sup>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군사적 요충지, 격전지를 통해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고도 하겠지만, <정읍사> 화자의 남편이 이런 곳에서 행상 일을 다녔다고 떠올려 보면 작문에 나타난 화자의 걱정을 더욱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한편 1656년 전후에 이루어진 『여지지(輿地志)』에 따르면<sup>21)</sup> 정읍에는 후

18) 『삼국사기』 권 37 「잡지」 6 「지리」 4 「백제」·「고사주 속현」.

19) 『삼국사기』 권 3 「신라본기」 3 눌지마립간 36년(452).

20) 박영순, 『정읍 은선리 고분군과 백제가요 정읍사』, 『국토』, 국토연구원, 2008.7, 155면.

21) 「山川」…雲住山(泰仁縣 동쪽 15리에 있다. 그 남쪽 봉우리 石壁에 굴이 있는데 照通窟이라고 한다. 겨우 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俗傳에 “三國 말에 照通和尚이라는 자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수행을 했다.”고 한다. 지금 작은 암자가 있다. 「寺刹」 龍藏寺: 운주산에 있다. 혹은 雲主寺라고 칭한다. 절 앞에는 시내가 있어 물이 폭포를 이루는데, 수丈을 흐른다. 옛날에 그 가운데 용이 숨어 있는 까닭에 이름하였다. 相傳에 “甄嘗時에 조동이 장건했다.”고 한다. 그 북쪽 벼랑에 또 王朴菴이 있다. (「山川」…雲住山 在縣南三十里 其南峯石壁有窟 曰照通窟 僅通一人出入 俗傳三國末有照通和尚者 修行其中 今有小菴…「寺刹」 龍藏寺 在雲住山 或稱雲住寺 寺前溪水成瀑 流數丈 舊有龍藏其中 故名 相傳甄嘗時僧照通創建 其北崖又王朴庵. -輿地志 권5上, 全羅道 泰仁縣). 번역과 인용은 허인옥,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

백제 건훤의 도움으로 창건되고, 후백제 멸망 이후에도 계속 후백제를 지지했던 ‘용장사(龍藏寺)’라는, 사찰이 있었고,<sup>22)</sup>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말년에 정읍의 명산 내장산에 영은사(靈隱寺)라는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한다.<sup>23)</sup> 정읍에는 나말여초에서 고려에 걸쳐 백제 불교의 전통을 유지한 사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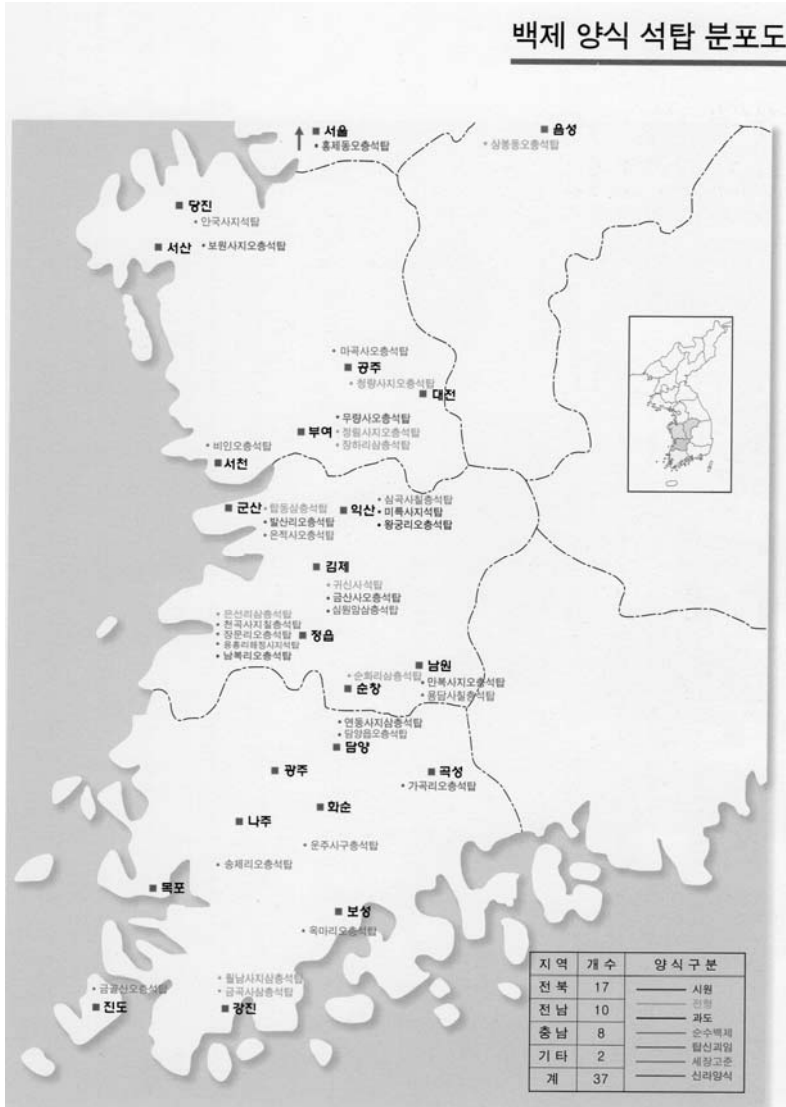
용장사 관계 기록은 정읍 지역의 불교가 후백제, 중앙 정부와 구별되는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한 흔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역시 불교 유적인 이른바 ‘백제 양식 석탑’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 양식 석탑은 총 37기가 남아 있는데, 전북 지역이 17기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읍에 5기가 남았다.<sup>24)</sup>

사학』 제48집, 전북사학회, 2001, 34면을 따랐다. 다만 함께 인용된 1718년의 기록인 『無竟集』의 『雲住山龍藏寺事蹟記』에 따르면, 이 사찰은 신라 박씨왕 때에 창건했다고 하는데, 창건자 운주 조통이 나말 여초의 인물인 점과 정읍의 위치 등을 감안한다면 신라 초기인 박씨왕 때 건립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22) 후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운주 조통은 후백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로 인해 고려에 서는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허인욱, 앞의 글, 54면.)

23)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34 「전라도」·「정읍현」·「佛宇」.

24)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의 책, 7면.



백제 양식 석탑 분포도25)

25) 위의 책, 같은 부분.

흥미롭게도 익산 미륵사와 왕궁리 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탑 등 초기의 3기를 제외하면 백제 양식 석탑은 모두 고려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일단 참조할 수 있다.

백제 멸망 이후 고려건국 이전까지의 통일신라 시기에 백제계 석탑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백제 멸망 직후 백제 지도층이 해외로 빠져나가 석탑을 건립할 만한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백제계 석탑은 후백제의 건원이 정치·문화적으로 자극한 백제의식의 발현에 기인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왕건이 혼요십조를 유지로 남겼고, 이것이 후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더불어 백제계 석탑도 고려 중기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고려 전기 후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이 선종 대 이후로 약해지자, 탑의 양식 또한 순수 백제계 석탑이 양식적으로 퇴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나 백제계-절충양식으로 나타난다. 백제계 석탑은 14세기로 추정되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백제계 석탑의 소멸은 13세기 무신정권의 정책과 몽골의 침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sup>26)</sup>

혼요십조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후기 신라와 고려에 걸쳐 별반 다르지 않았던 백제와 후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정책이 역설적으로 백제문화권의 정체성을 고려 후기까지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백제 양식 석탑이 후기 신라(8~10세기) 시기에 없었다는 문제<sup>27)</sup>를 굳이 부정하기보다는, 수백 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몇

26) 박지훈,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 『강원사학』 제27집, 강원사학회, 2015, 52~53면.

27) 다음과 같은, 이 무렵 백제 양식 석탑은 부재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8세기 이후 건립된 신라지역 석탑에서 나타나는 백제양식을 통해 백제 고토에서 복고화된 양식으로 당연히 되어온 백제양식이 고려 건국에 전에 이미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석탑 건립의 지방화 현상이 진행되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부터 백제 양식 석탑이 일부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고려 신앙식이 다분히 발현된 백제 양식 석탑의 고찰을 통해 현재 백제 고토에 한정되어 있는 백제 양식 석탑에 대한 시각을 넓혀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백제양식석탑이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무렵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고려 시대 건립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고, 그 연결고리를 순수 백제 양식 석탑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8세기 중후반 무렵에 백제의 종교적, 역사적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백제 고토에서 활동한 진표를 주목하였다. 따라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무렵부터 일부 백제 양식 석탑이 건립되었고, 여기서 나아가 지역적 특색과 고려 신앙식이 가미된 보다 포괄적인 백제 양식 석탑으로까지 진행된 것으로 연결시켜 보았다.”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의 양식과 건립연대에 관한 검토』, 『불교미술사학』 제12집, 불교미술사학회,

세기 동안 꾸준히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 더 주목하겠다.

고려 석탑 자체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특수형 등으로 세분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지역성이 공존했던 것이 고려문화의 한 특징이기도 하고, 정읍을 비롯한 옛 백제 지역이 백제문화권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성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전북 지역에는 무왕(서동)의 근거지였던 익산에 건립된 초기의 2기를 제외하면 15기의 석탑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5기가 정읍에 모여있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백제에 의해 건립되어 멸망 이후까지도 후백제의 편에 섰던 용장사는 별다른 기록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자취도 없게 되었지만, 14세기까지도 백제 양식 석탑은 정읍에 꾸준히 건립되어 백제의 정체성을 오늘날까지 일깨워주는 기념비가 된 것과는 같다.

백제 양식 석탑의 특징은 층에 따라 탑신의 길이와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탑신을 좁고 얇게 구성하여, 아래에서 올려다본다면 과장된 원근감 탓에 위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특히 ‘백제 양식 절충형’의 경우에 일부 석탑은 1층이 과도하게 커진 형태를 띠기도 한다. 정읍에 자리한 백제 양식 석탑의 목록과 모양은 몇 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0-1 정읍신선리산중사탑(남북연)

은선리(순수형), 13세기



22-1 취곡사지일층사탑(북쪽면)

천곡사(백제 절충형), 13~14세기



20-1 용흥리백제사지석탑(남쪽면)

용흥리(백제 절충형), 14세기



20-1 남북리오층석탑(남북면)

남북리(신라 절충형), 12세기

1) 순수형

: 은선리 3층 석탑(보물 167호) - 고려 후기(13세기)

2) 백제 양식 절충형(細長高峻形: 모두 1층 탑신이 매우 높은 사례에 해당함)

: 장문리 5층 석탑(유형 13호) - 고려 중기(11~12세기),

천곡사지 7층 석탑(보물 309호) - 고려 후기(13~14세기),

용흥리 해정사지 석탑(유형 96호) - 고려 후기(14세기)

3) 신라 양식 절충형

: 남북리 5층 석탑(유형 95호) - 고려 중기(12세기)<sup>28)</sup>

정읍에 남아있는 백제 양식 석탑은 이렇게 건립 시기가 11~14세기로 비교적 고를 뿐만 아니라, 순수형과 백제 양식, 신라 양식 절충형 등으로 다채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백제 시대에 건립된 3기를 제외하면, 정읍은 모든 유형의 백제 양식 석탑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형에 해당하는 은선리 3층 석탑이 남아 있는 은선리의 “천태산 일대에는 백제 시대의 고분 수백여 기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sup>29)</sup> 정읍이 삼국시대부터 요충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분군과 석탑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특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다음 연구에 따르면 이 고분군의 주인은 사비성을 도읍으로 한 백제 세력보다는, 그 이전의 마한 세력에 한걸 가까이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28) 시기 구분과 사진은 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의 책을 따랐다.

29) 이문형, 『정읍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분포와 현황 - 영원면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제17권 3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16, 178면.





부여 능산리 고분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은선리 고분군 19호분(출처: 문화재청)

최근 전라도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 마한 시기 분구묘로 인해 이들 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입지한 지형과 분포 상태 등은 마한의 분구묘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그럴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이 지역의 횡혈식 석실묘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비기 횡혈식석실묘는 대부분 개석이 완전히 지하화되는 지하식인데 반하여 영원면 일대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의 대부분은 육안으로 유형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상식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상식 구조의 매장시설 조영은 마한 시기의 분구묘적 속성의 하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략) 종합해보면 영원면 일대에는 경제력과 교통로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분구묘를 축조하는 재지 세력이 있었으며 이들 세력이 백제로 편입 혹은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영원면 일대에 확인되는 수백여 기의 횡혈식 석실묘가 그 결과물로 판단된다.<sup>30)</sup>

은선면을 비롯한 정읍 영원면의 마한 세력은 백제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나름의 고분 양식을 수백 년간 지속하거나 사비기 백제의 양식과 절충하면서 수백여 기를 지속할 만큼의 문화적 정체성은 유지했다는 것이다. 백제와 마한의 관계를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정읍의 문화와 <정읍사>의 연원에 마한도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미륵사 창건에 얽힌 서동<sup>31)</sup>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마한의 시조 무강왕(武康王)에

30) 이문형, 앞의 글, 186~195면.

31) 여기서는 서동을 무왕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이 반영된, 가공인물에 가까운 문화적 형상화

연결하여 마한의 건국신화로 간주하는 관점<sup>32)</sup>까지 유의한다면,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을 마한에 연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 중심으로 서술된 『삼국사기』의 백제상을 뛰어넘어, 호남 중심의 마한과 백제상을 일구어낼 수도 있으리라 전망한다. 후대의 인식을 반영하여 달라져 가는 문헌 사료와는, 달리 석탑과 고분군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읍사>는 문학사 쪽에서 새로운 백제상을 열어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

#### IV. <정읍사>의 가치와 속요의 현장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을 현재 남은 석탑과 고분군을 통해 자리매김해 보았다. 석탑 5기를 통해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이 백제문화권 안에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은선면 고분군을 근거로 그 정체성의 형성이 마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 또한 떠올려 보았다. <정읍사>의 소박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과 정서, 하늘 위의 달과 맨 아래 ‘즌디’에 이르는 시선의 폭, 훗날 궁중음악 수제천이 되어 전국에 퍼지고 1천 년 이상의 수명을 누려온 보편성 등은 이렇게 뿌리 깊은 기반을 통해 가능했다.

<정읍사>는 먼저 달을 부른 다음 간청하고, 그 간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는 어조가 두 차례 반복되는 전개 양상을 띠고 있다. ‘달’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정읍사>는 향가와 곧잘 비교되곤 하였지만, 달에게 멀리 비추어 달라고 기원하면서도 그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향가뿐만 아니라 의외로 다른 작품에서도 찾기 어려운 개성이 아닐까 싶다.

의 사례로 간주한다. 서철원, 『<서동요> 전승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399~419면 참조.

32) 이강래, 『고대의 익산에 대한 후대의 인식』, 『익산, 마한·백제 연구의 새로운 중심』, 서경문화사, 2014, 218~221면.

	[1]	
(前腔)	돌하	..... 호칭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간청①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2]	
(後腔全 <sup>33</sup> )	저재 너러신고요	..... 의문
	어기야 즌디를 드디올세라	..... 걱정① (의심 포함)
	어기야 어강도리	
	[3]	
(過 編)	어느이다 노코시라	..... 간청②
(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더 점그를세라	..... 걱정② (배려, 의문 포함)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 <井邑詞>, 『樂學軌範』

<정읍사>는 부부 사이의 감정을 제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백제가요와 거리가 멀지 않다. 특히 7행의 ‘즌디’와 10행의 1인칭 대명사 ‘내’를 부부 사이의 감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거론되었듯이 ‘즌디를 드디올세라’는 남편이 진 땅을 밟고 넘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의 표현<sup>34</sup>일 수도 있지만, ‘즌디’를 화류계의 비유<sup>35</sup>로 본다면 남편이 엉뚱한

33) ‘全’의 위치를 어디에 둘지는 <정읍사>의 형성 시기에 대한 시각과도 얽힌 문제이며, 강과 엽의 조합 방식에 관한 음악사적 인식도 얽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논쟁에 끼어들기 보다는, ‘전주’가 비교적 후대의 지명인 점과 본문에 다른 한자 표기는 없었던 점만을 유의하여 이렇게 처리했을 따름이다.

34)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71면. 한편 임형택, 앞의 글, 201~202면에서는 다음 민사평의 소악부 한역시에 나타난 ‘진흙탕 거리’를 여기서의 ‘즌디’와 의미가 상통하는, ‘곧 험악한 세상을 만나서 재난에 휩쓸리는 계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은 구름다리 끊어도 위태롭고/ 은하수 물결 잠잠할 때 파도가 인다네/ 이 캄캄한 깊은 밤중에/ 진흙탕 거리

짓을 하느라 늦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태도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면서도 의심하는 아내의 이중적인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36)</sup> 한편 ‘내 가는 더 점그를세랴’라는 말은 남편의 말일 수도, 마중가는 아내의 말일 수도 있으며, 이들이 가는 어두운 길은 오늘의 밤길, 내일도 올 밤길, 나아가 온 인생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2]는 ‘즌티’의 이중성을 고려하면 아내를 화자로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1]과 [3]의 화자는 생각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3]의 화자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느 쪽이 되어도 무방하다면, [1]에서 달을 두고 비는 쪽이 반드시 아내일까 상상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속요 가운데 <쌍화점>, <서경별곡> 등 일부 작품은 대사와 대화,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바탕에 둔 서사적, 극적 구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37)</sup> 그렇다면 <정읍사>에서도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읍사 공원에서 정읍사 배경설화를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가무악극으로 만드는 등의 시도<sup>38)</sup>는 과거에 있었던 연행으로서 <정읍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 성과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백제는 일찍이 일본에 음악을 전달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sup>39)</sup> 이를 바탕 삼아 역으로 백제 기악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sup>40)</sup>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기악을 비롯한 백제의 시가와 음악은 훗날 백제계, 신라

어디로 가려오? (黑雲橋亦斷還危 銀漢湖生浪靜時 如此昏昏深夜裏 街頭泥濘欲何之: 번역과 원문은 임형택, 앞의 글에 따랐다.)” 그렇다면 진흙과 걱정의 결합은 나름대로 전통적 심상을 따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다.

- 35) 지현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제4권 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24~25면.  
 36) 이 마음은 다음의 <宿世歌>라 불리기도 하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출토 백제 목간에 나타난 배우자에 대한 해학적 태도와도 유사해 보인다. “진생에 업보를 맺어 한 곳에 함께 태어났네. 울고 그름을 물어 어찌리! 하늘을 우러러 아뢰 수밖애.”(宿世結業 同生一處 是非相問 上拜白來).  
 37) 근래의 것으로 박상영, 『고려속요에 나타난 서사성의 한 양상과 그 시가사적 전승』, 『한국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153~191면이 있다.  
 38) 정읍사 가무악극의 내용은 『정읍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jeongeup.go.kr/culture/index.jeongeup?menuCd=DOM\\_000000601005001012](http://www.jeongeup.go.kr/culture/index.jeongeup?menuCd=DOM_000000601005001012)>  
 39) 백제에 기악을 전해준 미마지가 기악을 배웠다는 ‘吳國은 중국의 어느 지역이 아닌, 옛 고구려와 백제 영역을 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백제기악보존회 편, 『吳國의 위치에 대하여』, 『백제기악』, 동문선, 2007, 171면.  
 40) 백제기악보존회 편, 『연희 장면(줄거리)』, 『백제기악』, 동문선, 2007, 103~123면.

계 가인들이 『만요슈(萬葉集)』의 가요를 창작, 향유하는<sup>41)</sup> 기반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sup>42)</sup> <정음사>에서 다른 속요와 마찬가지로의 서사적, 극적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속요의 연행 예술적 성격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큰 가설을 세우는 동시에 한일 고대 시가와 기악의 교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가로 일원화, 단순화된 고대 한국 시가사에 향가와와는 별개의 흐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백제 당대의 예술 관련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정음사> 가무악극과 백제 기악의 복원은 콘텐츠의 창작을 통해 과거의 전통을 재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적절한 고증과 대중에의 호소력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학계와 공연 기획 측의 협력을 통해 좋은 본보기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겠다. 다음은 <정음사>의 전승 과정 및 <수제천>, <동동>과의 관계를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한 성과의 일부이다.

“(전략) 백제는 사라졌어도 그 음악이었던 정음 노래는 힘찬 군가로 백제 부흥군이 불렀습니다. 고려와 조선이 망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항전의 요새지가 정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제 말엽에 가서 원효 대사가 부안 개암사에서 백제 풍물을 배워서 신라로 가져가서 소성거사 중심의 불교 악대를 만들어 남자 무당인 화랑도의 군악으로 용기백배하여 삼국을 통일함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봅니다. 섬진강과 동진강의 교류 지점이며 노령산맥의 중심 허리이자 교차 지점인 해양, 곡창인 호남 평야가 이어지고 요새지 안에 산내 쌓치 평야가 있는 천혜의 구국 예술 명승지가 정음입니다.”

(중략) “그럼 수제천같이 느끼고 힘이 덜 들어가는 중국의 음악을 따라가다 조선왕조가 멸망하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되겠네요. 거참.”

구체적으로 정음의 풍물과 수제천, 그리고 동동의 흐름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옥 선생님(정음 농악 전문가 권희덕 선생), 그럼 조선조 궁중에서 연주되던 수제천 음악이나 동동과 정음의 풍물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41) 이연숙, 『일본고대한인작가연구』, 박이정, 2003; 황명천, 『만요슈와 한인계 시가 연구』, 보고사, 2005.

42) 이런 맥락에서 백제가요의 후신으로서 고려속요와 만엽집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서철원, 『주제론을 중심으로 한 속요와 『만엽집』 비교 시론』,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228~251면.

줄 수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흔히 정읍 풍물의 앞부분을 ‘도둑잡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뒷부분은 매굿이라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마찬가지로 매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려 공민왕 때의 시중 유태이 지은 <동동>과 충렬왕 때의 시중 이훈이 지은 <무고>의 사투리 말로 볼 때, <정읍사> 관현악의 소리로서 도둑잡이와 매굿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매굿’을 영고(迎鼓), 또는 맞이굿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불렀으나 후대에 들어와 충렬왕 때에 송인의 호족 사병 교육과정에서 정읍사와 정읍 풍물이 대규모로 연주되어 조선 말기에 태평소 매굿 풍물로 소박하게 전승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온양박물관(1960) 녹음 테이프를 자료로 순서대로 동동과 수제천을 정읍 풍물과 비교 검토하여 보니 정읍 풍물과 수제천이 음향과 순서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읍 풍물의 전반부를 도둑잡이라고 하는 바, 이는 동동잡희(動動雜戲)의 사투리였고, 후반부는 매굿이라고 하는 바, 경상도에서 역시 매구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서로도 아주 비슷하게 진행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음악이 낮고 느릴수록 높은 지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수백년 동안 수제천 음악이 이어지고 감흥이 없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축음기 산업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일본의 음반 회사들이 동동과 수제천을 주로 빠르게 백제, 고려 음악을 되살려 만든 것이 오늘날의 한국 민요라는 생각입니다.”<sup>43)</sup>

<동동>을 균악으로 단정하고 정읍 노래도 마찬가지로 유추하거나, 원효가 화랑단의 균악을 작곡했다<sup>44)</sup>는 등의 동의하기 어려운 역사 인식이 간혹 보인다. 그렇지만 <정읍사>를 매개로 정읍 농악<sup>45)</sup>과 수제천을 연결하는가 하면,<sup>46)</sup> 외국 음반 회사의 손을 타기는 했을망정 오늘날의 민요에까지 백제와 고려 음악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생각은 눈여겨볼 필요가

43) 정호완 외, 『육선생의 정읍사 이야기』, 『스토리텔링 백제가요』, 서경문화사, 2017, 54~55면.

44) 다만 미륵 신앙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가 초기 신라 불교와 화랑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국보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의 국적이 백제인지 신라인지 논쟁이 되는 것도 양국의 미륵신앙과 그 예술적 상징성이 서로 통했던 것이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45) 농악과 무속의 관계(김재영, 『정읍 농악과 신종교』, 『한국종교사연구』 제10집, 한국종교사학회, 2002), 정읍 지역 당산제 등에 관한 연구(박현국, 『정읍 지역 당산제 고찰』, 『한국민속학』 제27집, 민속학회, 1995)를 통해 민속 음악을 연원으로 궁중 음악이 형성해 가는 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6) 이와 관련하여 ‘어귀야’에 주목하여 <정읍사>의 음악적 연원을 정읍 지역의 향토 민요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김영운,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지역성과 갈래의 성격 및 형식·악조 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60집, 한국음악학회, 2016, 27면.

있겠다.<sup>47)</sup> 다른 콘텐츠 창작이 개별 작품의 특징을 재현 또는 응용하는 면에 그치는 것과 다르게, <정읍사> 관련 콘텐츠는 시가, 음악, 연희의 역사를 고려한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읍사> 자체가 지닌 지역문화 자산으로서 오랜 생명력과 함께, 정읍의 수제천 보존회를 비롯한 지역문화 단체의 활동과 정읍시의 지원 덕분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속요로서 <정읍사>의 현장은 궁중이나 역사 문헌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가무악극으로 재구성, 복원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현장이 정읍, <정읍사>와 백제문화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 V. 요약과 전망

<정읍사>는 백제가요이지만, 여기서 ‘백제’는 삼국 가운데 백제이기도 하지만, 고려 후기까지 지속한 백제문화권으로서 정체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고전시가의 경우 백제문화권의 특징으로는 지역성, 여성 화자, 애정 주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읍사>를 통해 고려속요의 전반적 속성으로 계승되는 한편, 일본에 전래된 백제 기악과 『만엽집』에 참여한 백제계, 신라계 가인들을 통해 동아시아적 범위로 확장하였다. 이것은 향가의 중앙 집권적, 남성 화자 중심적, 추상적 종교 사상 중심의 서정성과는 구별되는, 『고려사』·『악지』 소재 백제가요에서 형성된 큰 줄기였다. 정읍의 백제 양식 석탑과 고분군은 <정읍사>를 배출한 지역 문화의 역량이

47) 變奏된 것들과 원형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음악학회, 2006, 85~110면에 서술된, 수제천이 정읍을 개편, 변주하는 과정을 참고하여 이해했다. 이 글에 따르면 “<정읍>과 <수제천>은 악절단위의 형식과 장단의 면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두 악곡은 선율의 진행과 길이 그리고 디름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87면)” 그러나 <수제천>이 <정읍>에서 선율을 가져와 재구성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유사점만이 아닌 차이점을 함께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같고 다른 인상을 넘어서서 양자 사이의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흔히 고전을 재창작하면서 원작과의 동일성, 유사성을 지키기에 급급하거나, 일부 요소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여 원작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마련인데, <정읍>의 선율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변용을 시도한 <수제천>의 방식은 재창작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다.

<정읍사>는 심오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정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걱정과 의심의 이중성,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움직여 인생길을 나아가는 모습은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인간성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회라면 민간에서나 궁중에서나, 먼 옛날부터 가까운 시기까지 변함없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다만 부부와 가족, 사랑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고전으로서 <정읍사>의 역할도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콘텐츠로서 <정읍사>는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연행 예술로서 <정읍사>의 모습을 복원하게 되길 기대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富軾, 『三國史記』.  
金宗瑞·鄭麟趾 외, 『高麗史』 권 71 「樂志」.  
柳馨遠, 『東國輿地志』.  
無竟 子秀, 「雲住山龍藏寺事蹟記」, 『無竟集』.  
李荇 외,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4 「全羅道」·「井邑縣」.

### 2. 단행본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백제 양식 석탑』, 대광출판사, 2005.  
백제기악보존회 편, 『백제기악』, 동문선, 2007.  
이도학, 『살아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  
이연숙, 『일본고대한인작가연구』, 박이정, 2003.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정호완 외, 『스토리텔링 백제가요』, 서경문화사, 2017.  
조재훈, 『백제의 문화와 생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황명천, 『만요슈와 한인계 시가 연구』, 보고서, 2005.

### 3. 논문

- 김명준, 「<정읍> 전승사에서 ‘정읍’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35~56면.  
김영운,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 지역성과 갈래의 성격 및 형식·악조 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60집, 한국음악학회, 2016, 21~46면.  
김재영, 「정읍 농악과 신종교」, 『한국종교사연구』 제10집, 한국종교사학회, 2002, 359~386면.  
도수희, 「백제말의 시대별 특징」,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4, 49~58면.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음악학회, 2006, 85~110면.  
박상영, 「고려속요에 나타난 서사성의 한 양상과 그 시가사적 전승」, 『한국시가연구』 제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153~191면.  
박영순, 「정읍 은선리 고분군과 백제가요 정읍사」, 『국토』, 국토연구원, 2008.7, 155면.  
박지훈,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 『강원사학』 제27집, 강원사학회, 2015, 25~56면.

- 박현국, 『정읍 지역 당산제 고찰』, 『한국민속학』 제27집, 민속학회, 1995, 161~189면.
- 서철원, 『<서동요> 전승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399~419면.
- \_\_\_\_\_, 『백제문화권의 <정읍사>와 고려속요의 기원』, 『한국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2009, 289~306면.
- \_\_\_\_\_, 『주체론을 중심으로 한 속요와 『만엽집』 비교 시론』,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228~251면.
- \_\_\_\_\_, 『향가와 속요의 사이 - 시행 구성과 어조, 정서의 대칭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30집, 국문학회, 2014, 39~62면.
- 양태순, 『정읍사는 백제 노래인가?』,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원 수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이회, 1997, 147면.
- 이강래, 『고대의 익산에 대한 후대의 인식』, 『익산, 마한·백제 연구의 새로운 중심』, 서경문화사, 2014, 218~221면.
- 이문형, 『정읍지역 백제 황혈식석실묘의 분포와 현황 - 영원면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제17권 3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16, 171~203면.
- 임미선, 『정읍의 창작 시기와 전승 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 한국음악학회, 2007, 271~291면.
- 임주탁, 『정읍의 창작시기』, 『한국시가연구』 제1집, 한국시가학회, 1997, 293~325면.
- 임형택, 『<정읍사>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201~204면.
- 전지혜, 『백제양식석탑의 양식과 건립연대에 관한 검토』, 『불교미술사학』 제12집, 불교미술사학회, 2011, 103~133면.
-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127~149면.
- 지현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제4권 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141~202면.
- 허인욱,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사학』 제48집, 전북사학회, 2001, 31~58면.

#### 4. 기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http://www.heritage.go.kr>>

정읍시 문화관광 누리집 <<http://www.jeongeup.go.kr/culture>>

Jeongeupsa and Jeongeup's cultural and historical status  
as a legacy of the local cultural sphere

Seo, Cheol-won

Through this article, I w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eupsa and Jeongeup's local culture, and to shed light on its works and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tatus of the area. It is not certain when Jeongeupsa is formed, whether Baekje or Goryeo. However, other Baekje pieces of Goryeo Dynasty that introduce this work are also more than half of them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fore, the date of formation of Jeongeupsa cannot be regarded as Baekje solely based on it. Rath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ity, female writers and the themes of love shown in these Baekje books. These are the things that Baekjeyo shares with the Goryeosokyo, in contrast to Silla Hyanga's central, masculine and religious orient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o Jeongeupsa, the Baekje Kingdom of the Three Kingdoms passed on its own tradition of contrasting with its flavor to the Goryeosokyo. As the foundation of Jeongeupsa in Jeongeup area, stone pagodas and ancient tombs need to be reconsidered. Five of the 37 existing Baekje-style stone pagodas remain in Jeongeup, the largest single area. It also appears evenly in the 11th and 14th centuries, revealing that Jeongeup was continuing the homogeneity of Baekje until this time. And through the remnants of Mahan culture reflected in many ancient tombs, you can see that Jeongeup's cultural identity spans Mahan and Baekje. Now beyond the debate over the creation period of Jeongeupsa,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identity as a cultural heritage in Jeongeup.

keywords: Jeongeupsa, Jeongeup, Soojecheon, Goryeosokyo, Baekjegayo, local cultural sphere, Baekje-style stone pagodas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